금감원장 "보험금 지급 '좁은 문' 고쳐라"

혜택만 강조 가입 시켜 놓고 지급은 까다로워

소비자 권익침해 감독 강화… 약관도 쉽게 고쳐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혜택만 강조하며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김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보험 상품의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불만 사항이 무엇인지, 왜 그런 불만이 발생하는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불완전 판매, 과장 광고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모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며 "보험사들은 보험을 가입시킬 때는 '넓은 문',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좁은 문'이라는 시장의 불만이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보험 약관은 그동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고 복잡해 민원과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보험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일반인 수준에서 평가해 개선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금융 수요자가 인·허가나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할 경우 정확한 접촉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회신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또 인·허가 업무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보험사가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을 때 신탁업법상 인가 외에 보험업법상 인가는 폐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에 대해 지적 재산권에 준하는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배타적 사용권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내년 4월부터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RBC)로 전환하면 보험사의 위험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삼성 올 27조8천억 투자 확정

역대 최대 … 채용도 대졸 신입 7,500명 포함 2만5천명 계획

삼성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또 올해 대졸 신입 7천500명을 포함해 모두 2만500명을 뽑기로 했다.

삼성은 28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올해 투자는 지난해의 22조4천억원에 비해 24.1%, 5조4천억원이 늘어나고 채용은 대졸 신입 기준으로 작년의 6천800명에 비해 10.3%, 700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5년간 모두 96조1천억원, 연간 평균 19조원의 투자금액을 집행한 바 있다"면서 "삼성은 올해 대폭적인 투자 확대로 지멘스와 휴렛패커드에 이어 세계 전기·전자업계 3위 수준인 매출을 3년 안에 1위로 끌어올리는 한편 169억달러로 세계 21위인 브랜드 가치도 5년안에 10위권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올해 채용규모를 작년 1만6천명 보다 28% 증가한 2만500명으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주요 투자 분야로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분야에 7조원, 비(非)메모리에 1조원 등 모두 8조원, 디스플레이 5조3천억원, TV 등 전자세트(set) 및 부품에 1조2천억원, 조선 분야 1조원 등을 예시했다.

시설투자가 19조1천억원으로 지난해의 14조7천억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4조4천억원, 비율로는 29.9% 늘었고 연구개발(R&D) 투자는 8조원으로 지난해의 7조2천억원에 비해 8천억원 증가했다. 자본투자는 7천억원으로 지난해의 5천억원에 비해 2천억원 늘어났다고 삼성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이건희·이학수 삼성전자 대표이사직 사퇴

윤종용·이윤우·최도석 대표이사 체제로

삼성전자는 28일 이건희 대표이사 회장과 삼성 전략기획실 부회장으로 있는 이학수 대표이사가 앞서 쇄신안 발표때 밝힌대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윤종용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최도석 사장 등 5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종용 부회장, 이윤우 부회장, 최도석 사장 등 3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고, 이사회는 이들 사내이사(대표이사) 3명과 사외이사 7명 등 모두 10명으로 운영되게 됐다. /연합뉴스

美쇠고기 완전개방 한국이 앞장 섰다

최다 수입국 멕시코보다 규제 수준 낮아

한국이 미국의 주요 쇠고기 수출 시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연령·부위 규제를 완전히 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앞세워 일본 등 아직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을 본격 압박할 기세다.

28일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 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사먹은 나라는 멕시코로, 모두 11억8천507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어 ▲캐나다(6억203만달러) ▲일본(2억4천425만달러) ▲한국(1억1천879만달러) ▲대만(1억721만달러) ▲중국·홍콩(3천632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뼛조각 문제를 해결하느라 4월에서야 교역이 시작됐고, 그나마 등뼈 발견으로 10월초 검역이 다시 중단돼 실제 수입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곧바로 4위권에 진입했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적 시장 수요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협상을 통해 결국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두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쇠고기 교역국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6대 수입국 가운데 우리와 같이 미국 쇠고기에 '완전 개방' 상태인 곳은 캐나다뿐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03년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이 발생했다가 역시 작년 5월 미국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처지로, 미국산 쇠고기에 연령·부위 등 제한을 두면 당장 자국 쇠고기 수입 확대를 다른 나라에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1위국인 멕시코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고, 3위 일본은 더 강한 '20개월 미만'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홍콩은 모두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 조건에 맞는 미국 쇠고기만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새 수입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것이면 등뼈도 아무 제한 없이 들여와야 한다. /연합뉴스

남아共 다이아몬드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회) 1층 샤링매장은 오는 5월1일까지 '남아공 다이아몬드 초대전'을 마련한다.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남아공 전통차 '루이보스티' 등 다양한 증정품을 제공한다. 〈롯데광주점 제공〉

"하반기 경기둔화 속도 빨라질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하반기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최근 수출호조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 침체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의 성장모멘텀도 약화돼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미국경제 침체가 일본, 중국 등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기를 둔화시켜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역내 무역둔화를 통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역내 무역활성화로 한국 수출의 미국경기로부터 탈동조화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대미수출 둔화가 대아시아수출 확대로 상쇄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자재 생산국의 수입증가로 우리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지는 않아 수출은 하반기에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물가 상승효과로 수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 증가율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던 소비는 올해 들어 물가불안, 일자리 창출력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고, 올해 1·4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해 하반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금융硏, 4.8%→4.5%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5.1%에서 5.0%로, 하반기 전망치는 4.6%에서 4.0%으로 낮췄다.

금융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둔화와 내수부진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원은 애초 올해 경상수지가 29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의 흑자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80억4천만달러로 크게 늘려잡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에 124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하반기에 43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주식 부당 매매·펀드 분쟁 급증

1분기 민원·분쟁 발생 289건 26% ↑

올해 1·4분기 증시 부진 여파로 주식 부당 매매 권유와 펀드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다.

28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올해 1·4분기에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민원·분쟁발생 건수는 289건(28개사)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2%(60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펀드 등 간접상품관련 민원·분쟁이 5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3% 늘어났으며 부당 권유 행위도 36건으로 89.5% 증가했다.

간접상품관련 민원·분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4분기 7.0%에서 19.7%로 높아졌다.

이는 증시가 작년 활황장세에서 약세로 돌아서자 증권사 직원들의 종목 추천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중에 증권사 등을 상대로 민원과 분쟁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 브로커도 처벌

내년부터 … 1년이하 징역

내년부터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무경력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대여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건설기술자가 고의나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로 돼 있는 전면책임감리대상은 2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된다. /연합뉴스

옥션 "약관변경 재검토"

해킹사건 이후 약관을 변경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오픈마켓 옥션이 약관 재조정 검토방침을 밝히는 등 해명에 나섰다.

옥션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오해와 지적이 있어 해명코자 한다"며 "책임회피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을 변경할 이유가 없지만 개정표현이 오해를 줄 수 있다면 문구조정을 적극 검토해 고객의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옥션은 창사 이래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맹점 수수료율 삼성카드 가장 비싸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대카드

5개 전업계 신용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현대카드의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1월31일 기준)은 3.07%로 집계됐다.

수수료율은 삼성카드가 3.25%로 가장 높았고 현대카드는 2.90%로 가장 낮았다.

최대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3.17%, 비씨카드는 3.02%, 롯데카드는 3.00%였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대카드가 2.51%로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한카드 2.50%, 삼성카드 2.30%, 비씨카드 2.24%, 롯데카드 2.20% 순이었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대카드가 2.44%로 가장 높았고 삼성카드 2.38%, 신한카드 2.37%, 롯데카드 2.33%, 비씨카드 2.28%로 뒤를 따랐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을 일반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분리해 도매·소매업 등 13개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산출해 공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화인피앤씨㈜	경리 및 총무업무 담당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951-3751
㈜화인코리아	[연구개발/환경/생산/경리/운송기사]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1-330-4523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광주/전남] 2008년 대우캐피탈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2-524-6900
㈜이노셈코리아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 장치 조작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521-8030
Aniya(애니야)	신입 및 경력 애니메이터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10-9944-7063
신일가스㈜	고압가스용기 검사, 관리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01	062-951-0011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TM지점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5/01	062-360-5201
H&G(비타민하우스)	영업 및 영업관리 사원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02	062-526-8404
디자인시트	인터넷쇼핑몰운영 및 관리 사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5/03	062-574-9182
대성애드	각종 광고물제작 및 현수막제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4	062-374-1727
한국인포데이타㈜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6	062-360-0503
남선석유㈜	영업사원(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06	062-221-5131
성대산업개발㈜	건설현장관리 및 경리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9	062-576-8982
송원철강㈜	경리/전화응대/출납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62-955-096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